



창극·관현악·무용 등 전통예술을 시대와 세대가 공감하며 어우러지는 무대로 풀어낸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의 대표상설공연 2017 목요국악예술무대가 올해 마지막 공연을 올린다.

23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목요국악예술무대의 대미를 장식할 '本, 和樂(어울리고 즐거움 더하다)'은 국악원 교육학예실이 마련한 무대, 교육과 연관된 기악, 무용, 민요, 병창 등 관객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익숙한 전통예술로 꾸며진다.

무대는 귀에 익숙한 노래 선율과 장단 놀음을 연주자들의 특색과 다양한 구성의 악기 음향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새로운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는 판소리 흥보가의 한 대목을 가야금에 얹어 부르는 '가야금

▶ 전북도립국악원 2017목요국악예술무대, '本, 和樂'

기악·무용·민요·병창 등 익숙한 전통예술로 꾸며져 국악원 교육학예실이 마련... 23일 소리문화전당서 공연

병창, 제비노정기'로 연다. 이 곡은 다리를 다친 제비를 흥부가 정성껏 치료해 주자, 제비가 흥부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강남에서 박씨를 물고 오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경치를 두루 노래하는 대목이다.

이어지는 '대금 낙화'는 이형기 시인의 '낙화 중, 첫 소절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기반으로 작곡된 곡. 이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

한 초연함을 담아낸다.

세 번째 무대에선 1996년 이철주 명인이 국악인 김원식·심상남 부부의 조화로온 삶과 예술을 다양한 전통가락과 리듬으로 표현한 창작곡 '외곡지성'을 선보인다. 곡은 대금을 주선율로, 아쟁 등의 악기로 저음을 보강하여 병주 또는 합주로 연주된다.

또 시인 곽재구가 승려시인 현담의 '하미단'에 대해 '존재의 먼 심연에 이르는 희미한 길과 안개가 펼쳐져 있을 것만 같

은 느낌'이라고 평한 것을 곡으로 옮긴 '가야금-하미단'도 들려줄 예정이다.

다섯 번째 무대에선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된 춤 '태평무(강선영류)'를 펼쳐 보인다.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 담긴 이 춤은 의젓하면서도 경쾌하고 가벼우면서도 절도 있게 물어치는 발 디딤새가 특징이다.

이번 공연의 마지막 무대는 '민요, 흥타령'으로 꾸며진다. 곡명은 '무정방초(無情芳草)'는 연연(年年)이 오는데 청춘은 한 번 가면 다시 올 줄 모르노고(후렴) 아이고 대고 흥 성화가 낮네 흥... 후렴구에서 조흥(助興)으로 '흥 흥' 하는 데서 따온 것이다.

공연에 약은 국악원 홈페이지(kukakwon.jb.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수공예 산업발전과 수공예 인력양성을 위해 오는 12월 8일부터 2018년 2월까지 10주간 수공예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생 및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1기 전주 수공예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총 10강으로 구성된 이번 아카데미는 오리엔테이션과 특강을 시작으로 10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았던 은병수 감독을 비롯해, 베스트셀러 '기희홍신소'의 저자 서대웅 소장, 박재우 지음아틀리에 대표, 유연정 사람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수공예 관심 있다면? 일단 여기로”

전통문화전당, 내달 8일부터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과정 마련

연구소 대표, 김두환 페이스북 연구 소장, 지역문화정책에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문윤걸 예원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교수, 정수경 미래문화유산연구소장 등 국내 유수의 강사진들이 나서 특강을 벌일 예정이다.

특강은 사업·상품개발 기획 및 컨셉 도출법, 공예 트렌드에 대한 이해, 전통을 활용한 상품 디자인 및 개발 방법, 시장분석을 통한 마케팅전략,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프리젠테이션 방

법론 및 스피치 기법 등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강연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아카데미는 교육 완료 후 수강생이 직접 사업계획서 발표를 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교육생을 선정, 50만원~200만원까지 상품개발비를 차등 지원한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아울러 전당의 2018 전주 수공예 상품 상품화 지원사업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수강

생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교육비는 10만원이지만, 80% 이상 출석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아카데미 참여를 원하는 수강생은 오는 12월 1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www.ktcc.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병구 한국전통문화전당 센터장장은 “본 아카데미는 창조적 아이디어 발상,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등 수공예 종사자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場)이라며 “전주 수공예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꿈과 열정 넘치는 많은 분들의 아카데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무형문화재 판소리에능보유자 왕기석 명창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표창



전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에능보유자인 왕기석 명창이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21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열리는 제49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상 이유에 대해 "1989년 국립창극단 정단원으로 입단 한 왕기석 씨는 1986년 서울아시아개입문화예술축전참가자 '용마팔장사'의 주역을 시작으로 '춘향전' '우루왕' '서편제' 등 150여 편의 창극에서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이듬해엔 일본 5개 도시 순회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유럽·남미 등 20여 개국의 해외순회공연을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한국전통예술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왕기석 명창은 33여 년 간 국립창극단에서 비중 있는 주역배우를 맡아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또한 각종 공연에서 연출과 대본·작창을 맡는 등 지도자로서도 활약했다.

판소리경연대회인 제31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명창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왕 명창은 맑고 굵직한 소리와 과중을 압도하는 장쾌한 육성, 선이 굵은 동편제의 호방함과 기발고 애절한 서편제의 섬세함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등 성음과 연기력을 동시에 갖춘 대가로 평가받는다.

현재 정음시립정음사국악단 단장으로 재임하며 판소리의 저변확대와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해은 기자

‘창극을 어떻게 만들면 명작이 될까?’

국립민속국악원, 24일 민속악 포럼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효성)은 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창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24일 오후 1시 예음홀에서 '제3회 대한민국 민속악 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민속악 포럼은 전통음악 중 민속악의 쟁점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발전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다. 2015년 제1회 포럼에서는 국악극 제작의 흐름을, 2016년 제2회 포럼에선 창극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핀 바 있다.

포럼 진행자로는 김기형(고려대 국문과 교수)가 나선다. 발제자로는 이주영(인천문화재단 본부장), 김수미(부안아트홀 국악예술감독), 원세은(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원)이 참석해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배연형(판소리학회 회장), 손태도(판소리학회 수석부회장), 박인혜(창작단체 희비쌍곡선 대표), 이승우(창작연희집단 국악무대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창극을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신청은 22일까지 전화(063-620-2327)나 이메일(dagum@korea.kr)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장수 한누리리전당서 유영애 명창·제자 발표회

제25회 유영애 및 제자 발표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에 장수군 한누리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발표회는 금당 유영애 명창 및 제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구영서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전임강사의 사회로 유영애 명창 외 51명의 제자들과 함께 1부, 2부로 나눠져 흥보가를 시작으로 해서 춘향가, 수궁가, 적벽가 등으로 마무리됐다.

금당 유영애 명창은 장수군의 유일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2호 판소리 심청가 예능 보유자로서 유영애 판소리 전수관을 건립하고 사단법인 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를 설립하는 등 제자 양성과 판소리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금당 유영애 명창은 “항상 전통음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득 장수군수와 유기홍 군의회의장, 그리고 여러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비록 앞으로 나이갈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결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